

익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올해 1497억원 편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막바지 준비 돌입

익산시가 지역의 모든 아동들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확대하고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아동과 관련된 사업 규모는 총 1천497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 1인당 372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16만원, 4.5% 상승했다. 총 사업 예산 가운데 국비 651억원(43.5%), 시비 530억원(35%), 도비 316억원(21%)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19개, 17억원이 편성됐으며 맞춤형(아이사랑) 콜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전체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과 보호 44.2%, ▲교육환경 24.8%, ▲보건과 사회서비스 16.8%, ▲놀이와 여가 6.9%, ▲가정과 환경 6.4%, ▲참여와 시민의식 예산은 정책 보강 작업을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크게 확대했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관련된 사업은 45개, 662억원이 편성됐으며 아동학대 대응,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교육환경 분야는 71개 사업, 372억원이 투입되며 지역아동센터와 공공 어린이집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추진된다.

익산시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관련 예산 사업 분석·진단을 위해 아동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33개 부서, 252개 사업의 예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했다.

아동친화예산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구성요건 중 하나로 올해 본예산(67개 영역(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으로 나눠 분석했다.

예산서는 매년 3월 발행되며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아동친화도시 분야에 공개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이를 토대로 시는 올해 안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인증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익산=정영민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 민생 챙기기 분주

간담회·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16일 경진위는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사업현장과 수제맥주특화사업장을 방문해 사업현황 청취와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진 위원들은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사업현장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조선기자재업체들이 재생에너지를 업종을 전환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대기업 의존적인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며 자생적 역량을 강

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조산업체의 자립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제맥주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제맥주시장은 외형적인 성장 추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지역수제맥주사업이 여전히 성장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형편이라며, 군산 맥아 소비확대로 지역 농업발전과 수제맥주 스토리를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개발과 상품화로 대표 관광자원 육성 및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견학·관광코스, 원료 체험, 수제맥주를 활용한 관광축제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군산=한현봉 기자

군산 개발 지역 3곳 '공무원 땅투기' 조사

적발땀 내부 징계, 경찰 수사의뢰... 26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

군산시가 ▲전북대 병원부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고군산군도 개발지역 등 총 3곳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3곳을 대상으로 최근 LH직원들의 3기 신고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북대 병원부지 ▲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고군산군도 개발지역 등 총 3곳이다.

또한 시는 필요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추가하는 등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는 시 전 직원과 그 가족(직계 존·비속)이며, 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 확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된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자체처벌,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내부자 제보를 받기 위해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자체 운영하며 26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군산=한현봉 기자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본격화

창립이사회 개최, 5월 출범... 연간 350억원 시장 확대

익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시는 16일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회를 열고 설립취지문 채택과 법인 정관, 올해 사업계획·예산

등을 의결하고 재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향후 재단법인 설립 허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전략 사업을 총괄 실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서부권 로컬푸드직매

장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센터 시설 건립을 통해 기회생산을 통한 학교·공공급식사업 등이 추진된다.

센터 운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생산·공공영역 공급 확대를 통한 소비체계를 우선 구축해 중·소농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공공영역에 350억원 규모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외식업 등 민간협력사업과 먹거리 공유경제 실현,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보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정영민 기자

지역 소식통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강임준 시장, 캠페인 동참

강임준 군산시장이 16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물품 서비스, 환경미화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분들에게 고마움과 응원을 전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신영대 국회의원, 이상천 제천시장을 지목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전국 시군구 남북 교류 협력 포럼 참여

군산시는 16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를 위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남북도시간 평화교류를 위해 창립됐다.

남북교류협력포럼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소통·협업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창립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및 일부 현장 참석으로 진행됐다. 주요참석인사는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통일부 차관, 37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함께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반려견의 사회성 향상 효과 규명

원광대 김옥진 교수 연구팀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김옥진 교수 연구팀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대상으로 '반려견을 활용한 동물 교감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해 사회성 향상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김옥진 교수는 지난해 농촌진흥청 반려동물연구사업단이 주관하는 '인간과 동물의 교감치유 기전 및 외부환경이 동물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관책임자로 선정돼 2022년까지 3년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연구팀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 특화된 반려견을 활

용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개월 동안 적용한 뒤 그 변화를 사회성 평가 척도와 뇌파 검사 데이터로 측정했다.

연구 결과 동물 교감치유 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사회성 기술과 협력성, 자기주장 개선과 더불어 뇌기능 자기조절지수 및 주의지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연구 결과는 전문학술지인 인문사회21, 청소년학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게재되고, 특허출원도 했다.

김옥진 교수는 "반려견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주는 이점이 국내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없는 상황으로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과학적 효과 검증과 그 기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정영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